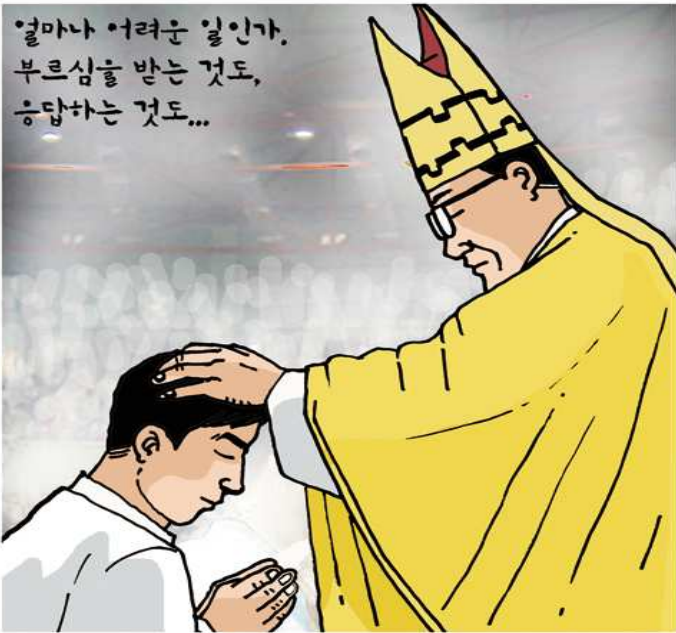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위원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위원장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이사49,3.5-6
[화답송] 시편40(39),2ㄱ과4ㄱ.7-8ㄱ.8ㄴ-9.10
(◎ 8ㄱ과9ㄱ참조)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 2독서] 1코린1,1-3
[복음 환호송] 요한1,14.12참조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복음] 요한1,29-34

성가	8시 미사	입당 62	봉헌 513 511	성체 160 161	파견 64
	11시 미사	입당 62	봉헌 513 511	성체 160 161	파견 64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2주일(1월 19일)		연중 제3주일(1월 26일)		주님 봉헌 축일(2월 2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이엘리사벳(자영)	김글라라(순희)	조레지나(선덕)	이바오로(명국)	권미카엘(창모)
제 1 독서	김안드레아(찬곤)	정요한(석준)	이바오로(명국)	이레이몬드(창용)	강요한(신호)	김길베르토(광호)
제 2 독서	김글라라(순희)	손리디아(정옥)	정스텔라(애리)	이메로니카(경란)	김안젤라(영선)	전베로니카(진영)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하느님의 어린양이 됩시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양"(요한1,29)이시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요한 1,34)고 자신이 증언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사실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신빙성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그의 증언은 참된 증언이라고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어린양"이라는 표현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솔직히 현대인들에게 "하느님의 어린양"이라는 표현은 매우 생소해서 낯선 표현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가 더욱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과연 요한의 증언처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셨습니다. 그 분은 실제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하느님 아버지께 희생 제물로 바쳐서 기꺼이 '하느님의 어린양'이 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어린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쳐지는 양을 '희생양' 혹은 '속죄양'이라고 합니다. 죄는 자신들이 지어 놓고 죄 없는 어린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들의 풍습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짓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어린양'이라고 하면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날 밤에 거행했던 "과월절의 어린양"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 받는 야훼의 종'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에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식에 쓰인 어린양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기에 요한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 속죄양이 되는 어린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요한은 이사야 53,7절에 나오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말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고난 받는 야훼의 종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았고 기대하

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하느님의 어린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름으로써 세상을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어린양"이 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탐하며, 자기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도 살고, 여러 사람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어린양'의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 기꺼이 '하느님의 어린양'이 됩시다. 아멘.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하느님의 어린양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
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
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 1,29)

‘하느님의 어린양’ 은 레위기 16장이나 탈출기 12장 그리
고 이사야 예언서 53장을 더불어 읽고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와 구원을 위하여 어린양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
음을 알게 됩니다.

잠시 그 당시의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제사장은 경건한 복
장과 성스럽고 치밀한 의식으로 한 마리의 어린양을 희생 제
물로 바치고, 참여한 백성들은 감사와 안도 그리고 평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죄는 자신들이 짓고, 속죄와 희생은 아무
상관없는 한 마리의 어린양을 제대에 바치는 것으로 대신합니
다. 속죄양으로 대속(代贖)된 어린양의 들릴 듯 말 듯 한 외
마디 비명소리도 귓전에 남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대신할 이런 속죄양을 만들어 내는데 대
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과 재산을 위해, 허
욕과 자존심을 위해, 무엇인가 나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속죄
양을 만들어 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어떤 때는 시간을, 수많은 핑계를, 나
말고 그 어떤 것이라도 대속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안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나를 위해 말입니
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속죄양의 모습으로, 스스로
세례자 요한 앞으로 다가오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앞으로
그 속죄양의 길을 걸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다가오십니
다. 내 앞으로도 오십니다. 또다시 내가 당신을 속죄양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처럼, 또는 다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도
괜찮은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런 것이 구원자의 길
임을 가르쳐 주러 오십니다.

이제 생각합니다. ‘나는 속죄양이 되어 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받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비
천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인지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가신 길은 분명 그런 길인데 나
는 왜 안되는지요?

어느 날 나의 아픔과 비명으로 인해 다른 이가 살 수 있다
면,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번 차례는
내가 속죄양이 된다 한들 그렇게 억울할 일만은 아닐 것입니

다.

자유롭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헤아려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있을지 모를 나의 무너짐조차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그 길을 따르기 어렵다면 이 한 주간, 어찌
면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내가 속죄양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귀석 신부
서울 개봉동성당 주임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나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서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글_정호승 시인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잠옷 입고 기도해도 되니?

주님 세례 축일로 우리는 크리스천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지구로 오신 엄청난 사실을 경축하는 성탄 시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 강가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분’ 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저는 모든 크리스천과 같이, 수녀의 역할도 세례자 요한처럼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기천리 베네딕도 교육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보성인은 12세기 신비주의 베네딕도 수녀인 힐데가르드입니다.

성녀는 녹색에서 생명을 보고 어려서부터 비전을 보며 우주의 원리를 엿보았습니다. 비전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주의 신비에 눈뜨게 하는 모습은 떼이아르 드 샤르맹 신부님을 능가(?)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순교자만이 증인이 아니라, 모든 성인들은 증인들입니다. 저희 베네딕도 교육원은 수원 가톨릭대학교가 있는 건달산 뒤편 기천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님이 건달산으로 올라올 때는 ‘주님께서 성체를 들어 올리신다’ (이수철 신부 詩)라는 시가 저절로 읊어집니다.

저는 떼이아르 드 샤르맹 신부님처럼 황량한 중국의 대지 위에서 자신을 봉헌하며 미사를 드릴 엄두는 내지 못해도 사제의 아름다운 일상을 부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달산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하느님이 들어 올리시는 성체라는 생각에 가슴이 뜹니다. 건달산이 제대가 되어 다가오면서 마치 하느님께서 미사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기천골의 자연은 하느님을 만나기에 너무 좋습니다. 기천골에 살면서 ‘고향’ 에 온 것 같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집에 휴가를 가면 어머니는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하느님을 아버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아버지라고 하니?” “십자가를 내려 놓거라! 한 번 죽은 것도 안쓰러운데, 왜 매달아 놓고 보니?” “ 예수님이 에미 앞에 갔으니, 불효다.” “성모님이 불쌍하다.” 라고 하십니다.

한번은 “잠옷을 입고 하느님께 기도해도 되니?” 라고 물으시며 잠옷을 입고 기도하려니 죄스럽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장독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예수님하고 팔베개하고 주무셔도 돼요!” 라고 했다

니, “아이고 송하다.” 하시면서 돌아앉으십니다.

어머니의 질문은 성경을 건성으로 읽었던 저에게 세례자 요한의 증언처럼 가슴을 두드립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그렇게 일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기도해도 되고, 예수님과 팔베개해도 됩니다. 모든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보게 하는 세례자 요한의 계시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홍성임 수녀
투스핑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도원

+ 목자의 소리

“신앙의 빛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
우리는 동시대의 많은 이들로부터
그에 반대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류가 과감하게 지식을 추구해 나가는 데
방해가 되는 험악된 빛으로 비쳐졌습니다.”

신앙의 빛, 2항

가톨릭전례

양심

양심의 존재

인간에게 윤리 생활을 위한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심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양심 때문에 괴로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지었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까위의 소설 전략에 보면 주인공인 끌라망스는 젊은 여자가 투신자살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죽인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아닌데, 깊은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양심의 목소리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한 법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 거기에 복종하여야 할 법이다. 그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피하도록 부른다. 필요한 곳에서는 마음의 귀에 대고, ‘이것을 하여라.’, ‘저것을 삼가라.’ 하고 타이른다. 이렇게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 주신 법을 지니고 있으므로 ...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사목현장 #16항).-

양심의 본질

조직 폭력배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조직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양심이 전혀 없을까요? 그들도 자기 조직을 배신하거나 비겁한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 안에서 가족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가책을 느낍니다. 사람마다 양심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떠한 사람도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관계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자석이 서로를 끌어당기듯이 영혼도 다른 영혼(다른 인간)에게 이끌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영혼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양심은 영어로 “함께” 라는 뜻과 흔히 과학이라고 번역하지만, 더 원래적인 의미는 “아는 것” 또는 “보는 것” 이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어떤 상황을 더불어 생각하는 것” 입니다. 어떤 청소년이 탐나는 물건이 있어서 충동적으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또는 선생님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나는 너를 대견하게 생각했었는데...” 더 나아가 하느님의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어떤 인간도 “관계성”을 떠나서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자기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하느님과 “더불어”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의 형성

“더불어 판단” 하는 양심의 기능은 어느 누구에게나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사람마다 양심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누구와 더불어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패는 강패들끼리만 몰려다니면서 그들 수준의 눈으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신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올바른 양심 형성은 올바른 이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 양심은 형성되어야 하고 도덕적 판단은 계발되어야 한다. 잘 형성된 양심은 바르고 진실하다. 잘 형성된 양심은 이성애 따라, 창조주의 지혜가 원하는 참된 선에 맞는 판단을 내린다.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쉽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며 권위 있는 가르침을 거부하도록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인간에게는 양심 교육이 필요하다(가톨릭교회교리서 #1783항).

양심의 형성에서 하느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다. 우리는 신앙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성찰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 의 도움을 받고, 다른 이들의 증언이나 충고로 힘을 얻으며, 교회의 권위 있는 가르침의 인도를 받는다(가톨릭교회교리서 #1785항). -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 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1월 19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부모님	최타데오(몽렬)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박돈보스코	박데레사
	생 찬미성가대	유리디아
	생 정아가다(청자)	순교자들의모후Pr.
	생 최파비아노(동현)	정스텔라(애리)
	생 최안젤라(가은)	정스텔라(애리)
	생 김아가다(옥희)	조바실리오(진행)
	생 전아네스/전마리나	전안드레아(덕천)
	생 조요셉(승구)	조데레사
	생 김영호	조데레사
	생 조베드로(찬구)	조데레사
	생 조야고보	조데레사
	생 채헬렌	박데레사
	생 가족	신엘리사벳
	생 크리스토퍼오쿠모토	신미카엘라
1월 21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이영호	김케넷가정
	생 김아네스(순이)	익명
	생 이아네스(성숙)	김아네스(순이)
	생 변아네스(혜수)	서데레사
	생 이아네스(윤정)	김데레사
	생 이아네스(윤희)	김데레사
	생 조엘리사벳(영순)	김데레사
	생 ME 참가 부부들	본당 ME
1월 22일 수	생 채토마스/줄리가정	박데레사
1월 23일 목	연 김도마 기일	김카타리나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1월 25일 토	연 아버지	이베로니카(기희)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79	270	-	349
헌 금	\$551	\$1,402	-	\$1,953

< 교무금 > \$2,520

정기환(1-2) 유춘성(1) 유경돈(1) 전숙희(1)
 김순이(1) 남금지(1) 팽현팔(1) 윤성일(10-12/13)
 이영길(1) 염명련(1) 정애리(1) 이완수(1-2)
 이흥구(1-2) 이병열(1) 박종영(1-3) 김정복(1)
 변귀태(1) 김관수(10-12/13) 조승구(1-2)
 임윤택(1) 김관숙(1)

< 성소후원금 > \$80

전숙희(1) 김순이(1) 윤성일(10-12/13) 김정복(1)
 임윤택(1)

< Bishop's Appeal > \$655

변귀태(1)

< 감사헌금 >

윤순의 \$200

~~~~ 오늘의 간식은 김데레사/서데레사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 알는 이들을 위한 기도 : 오늘 미사 중
- ◆ 설합동위령미사 : 1월 26일(주일) 교중미사 중 미사봉헌을 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8시 아침미사 있습니다.
- ◆ 주님 봉헌축일 초 봉헌 : 2월 2일(주일) 교중미사 중 1년 동안 전례에 사용할 초 및 기타 전례 용품을 봉헌해 주십시오. 개인 기도초도 함께 축성합니다.
- ◆ 오늘 미사 중에 2013년도 결산 내용 공지가 있겠습니다.
- ◆ 2014년도 교무금을 약정하시어 친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 ◆ 2차 헌금 안내  
1월 19일(오늘) : Seminary(신학교) 후원
-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뜨개질사랑회 : 1월 19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본당 ME 모임 : 1월 19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사목총회  
1월 19일(오늘) 교중미사 후 친교실  
- 사목위원 부장/차장 및 각 단체장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십시오.
- ◆ 빈첸시오 홀리스 식사 제공 봉사  
일시 : 1월 23일(목) 오후 4시  
\* 봉사해 주실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싸인업 양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북가주 제 25차 ME 첫주말 공지  
일정 : 2014년 1월 24일 - 1월 26일까지(2박 3일)  
장소 : Hilton Garden Inn, Hayward CA  
문의 : 한요섭 415-810-3175/한헬레나 925-285-2038  
참가부부 : 김용재 스테파노/이진희 헬레나 부부  
김민규 바오로/이자영 엘리사벳 부부  
지창민 시몬/지성연 베레나 부부  
\* 참가부부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1월 구역모임 테살로니카 3-5장 |             |                           |
|--------------------|-------------|---------------------------|
| 1 구역               | 1월25일(토) 6시 | 신정은 미카엘라 맥                |
| 5 구역               | 1월26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
| 7-2구역              | 1월25일(토) 6시 | 정태준 안토니오 맥                |
| 8-1구역              | 1월25일(토) 5시 | 정일환 프란치스코 맥               |
| 8-2구역              | 1월25일(토) 6시 | UC Village Four Corners # |
| 10 구역              | 1월31일(금) 6시 | 윤성진 루카 맥                  |

- ◆ 본당 대건장학회 2013년 결산 공고  
2012년 이월금액 : \$39,029.42  
2013년 총수입 : \$27,071.00  
2013년 총지출 : \$13,839.02  
2014년 현재잔액 : \$52,261.40(1월 12일 현재)  
\* 협조해 주신 분 : 워크은행사(67명) 골프행사(83명)  
\* 지출내역 : 사무비 총액 - \$1,949.79  
                  행사비 총액 - \$4,889.23  
                  장학금 지급 - \$7,000.00(총 5명)
- ◆ 길잡이 학교 4기 수강생 모집  
대상 : 관심 있는 꾸르실리스따 모두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 서중부 남성 제 11차 영어권 꾸르실료 봉사자 모집  
일시 : 2014년 6월 26일 ~ 29일  
장소 : Holy Redeemer Center, Oakland  
\* 북가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영어권 꾸르실료입니다. 남성 꾸르실리스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 세금보고 자료를 신청하셨던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 가십시오.
- ◆ 대건풍물회에서 결산금 \$211.92을 장학회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 성경쓰기 노트를 상품과 함께 사무실에서 찾아 가십시오.
- ◆ 연도 안내  
1월 19일(오늘) 임재선 그레고리오 형제님 1주기

| 주일학교 소식 |
|---------|
| - 오늘 개학 |

| 안국학교 소식        |
|----------------|
| - 2월 1일 : 설 행사 |